

인쇄하기

Re:안녕하세요 카페 가입 인사를 드립니다— 수정하여 큰 글자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 자유 게시판

하늘본향 | 조회 71 | 2017/10/24 00:46:32

복음전도 만큼 신나는 사업은 없지요

다음에 소개해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동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결과
 제 경험이 되고
 제 생애가 되고
 제 기쁨이 되고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제 경험의 노래로서

저는 진실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고 싶은
 지구촌 모든 분들에게 이 경험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전 우리 성도님 모친 장례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여
 죽음이란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확고하고 든든한지를
 성경과 예언의 신, 그리고 저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확신하고
 참으로 인생 문제들이 이것으로 해결되고 만족을 얻으리라 확신하기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844년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이 지구촌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셋째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초기문집, 253, 254]

셋째천사의 기별은 하늘 지성소시대에 시작되었고 하늘 지성소 시대에 끝이 나게 되며
 하늘 지성소 시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1844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시작되었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셋째천사의 기별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생사간
 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 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대쟁투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
 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
 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행 3:19)르는
 "늦은비"(호 6:3)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계 7:2)을 받았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계 16:17)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효는 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대쟁투, 613

그리고 초기문집에는 셋째천사의 기별이 마치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는데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짐:

...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가 나오시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다. 이제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졌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동안에는 억재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가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떠나시자 그 능력은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진노가 내릴 수 없었으나 그의 사업이 마쳐지자 그의 중재는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아무것도 없으므로 구원을 무시하고 견책을 싫어한 죄인들의 피난처없는 머리 위에 그분의 진노가 맹렬히 부어졌다.**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초기문집, 279

지구촌에 보내는 마지막 사업은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시작되었고 또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께서 나오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초기문집에는 1844년 셋째천사의 기별이 시작된 후로 예수께서 하시는 사업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란 주제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는 법계 앞에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별을 깨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계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다.--- 이상 초기문집, 254

위의 증언에서 우리는

셋째천사의 기별을 깨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는 곧 하늘 지성소에서는 예수께서 그 법계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들 모두에게
운명을 결정하는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사료됩니다.

★1844년 이후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데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그 율법에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지구도성 70억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팔려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의는 반드시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행사하므로 죄사함과 평강을 위하여
주님께 피하게 한다는 것.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그러나 죄인이 의를 얻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해야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지 않으면 악한 열매를 맺을 뿐이라는 것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으로 죄인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계정에 두시고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시고
회개하고 믿는 죄인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죄인의 허물과 결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순수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죄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자가 되게 한다.
그 까닭은 인간이 신성의 참여자가 되며
신성과 인성이 그의 안에서 결합되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순종이,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자기의 기쁜신 뜻을 위하여 행하셔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는 반드시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고 공로도 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받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란 사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어떻게 우리 생애에서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쟁지요. 다시 말씀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의
 로운 생애, 기쁨과 감사의 생애를 지속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
 다.

###제가 구하고 응답받은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죄가 들끓고 있는 우리 마음, 곧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야
 내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

이렇게 할 때
 오직 이렇게 할 때 만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실 때에[히 9:28]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 3:24]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 4:13]

여기서 시대의 소망 가운데 한 증언을 소개해 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소망, 300

1.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칭의[Justification]를 의미하며 입혀주는 의라고도 하지요. 칭의나 죄 사함이나 의롭다하심은 모두 같은 의미로서 갈바리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 죄사함을 받는 것이며

칭의나 죄사함이나 의롭다하심은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2. 그러면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적합성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적합성은 나누어 주는 의로서 성화라고도 하며 영문으로는 sanctification로서 이것은 평생사업이라고 합니다. 평생사업이라고 하지만 평생동안 힘쓰고 노력해야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1844년 후에는 매일 매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죽기 전 날마다 성화, 혹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는 날이 오늘이건 내일이건 마지막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
"For this is the will of God, your sanctification"

그러면,

이 적합성 곧 거룩함과 성화가 평생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개인적 임재,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로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받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끊임없이 열리겠 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매일 매일 기쁘고 감사한 생애가 계속된다는 것이지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여권이고 적합성은 비자로 비유할 수 있는데
여권과 비자가 모두 그리스도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임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심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게 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했지요
이 말씀이 모든 성경절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몇 마디로 된 가장 완전한 해석입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지요.

참고로 영문 증언을 소개해 드립니다:

"justification through the blood of Christ
and sanctification through the cleansing power of the Holy Spirit" -TM97

###어떤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장로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척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지속이 안 되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이런 현상은 재림교인이면 누구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3.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끊임없이 임재해야...

초대교회 제자들의 경험담을 증언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하여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신앙의 불을 지펴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에 계시고 그의 지도 아래서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는 그의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소망, 249.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재림신도들의 매일의 생애라고 사료됩니다

증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뜻을 그분께 복종케 하시며,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4.6.26.

- [1]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 [2.]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뜻을 그분께 복종케 하시며,
- [3]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적합성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붙어 있다는 것은 성령[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을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요 15:11)고 말씀하신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건강을 주는 기쁨이요, 생명을 주는 기쁨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 자신을 세상에 건강과 생명을 주기 위한 거룩한 감화의 근원을 만드신다.” -7T273.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 3:17]

"그리스도 안에 인성을 이루며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인간을 사랑할 수 있으며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을 쓰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에게서 기인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인성(神人性)에 붙들어 매신다.
이 연합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유한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결된다.
믿음을 통하여 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에 흡수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1기별251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에 시작된
하늘에서 보내주신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요 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을 받는 것"[소망 676]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붙어있다는 것은 붙어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전혀 아니지요
그리고 붙어있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맺히게 되며[이것이 하나님의 품성]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하셨는데[행 1:8]
이 하늘의 권능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죽사 우리에게 이 권능이 주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없이 어떻게 지구촌 각 사람을 포로로 삼고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권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세상도 지옥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는 권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셋째천사의 기별로서
셋째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하며 기별 자체에 힘이 있음으로
사업은 의로서 단축된다는 것이지요[초기문집, 75]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
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
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
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쟁투, 458.

위의 증언은

1844년에 활동했던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이 셋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별을 전했더라면 이미 그분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셋째천사의 사업은 마쳐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844년에 시작된 셋째천사의 기별이 전해진지도
금년으로 170년이 지났지만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지구촌에서 방황하고 있는지요?
무엇이 문제인지요?

그것은 셋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명백한 이해가 요구되며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 기별에 동반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셋째천사의 기별을 명백히 알아야 하며
이 기별에 동반되는 성령과 하늘의 불침례를 매일 받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에 대항할 아무런 의향을 갖지 못하게 된다." -TMK16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고전 6:19]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 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큼 크다
바로 이 근원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지며
성령은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로서
보혜사가 되신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2.11.29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증언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도 적합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
하셨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거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런 결합이 아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과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
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지속적인 교통을 통
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소망
676

"Without Me you cannot overcome one sin, or resist one temptation.
"Abide in Me, and I in you." Abiding in Christ means a constant receiving of His Spirit"
-DA676.

또한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 그대의 보혜사이시다...
그분은 항상 그대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그대 문을 열어달라고 항상 두드리고 계신다
그분으로 들어오시게 하라." -오늘의 나의 생애, 158

"The Holy Spirit is the Comforter, your Comforter.
He is always waiting at your door, always knocking for admittance. Let Him in." - TDG158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큰 죄는
저들이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2기별 57.

"The great sin of those who profess to be Christians
is that they do not open the heart to receive the Holy Spirit." -2SM57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 3:24]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 계시게 되며

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까요?

"사람은 사단의 포로이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그의 제안을 따르고 그의 명령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악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것처럼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의 욕망에 영향을 주고, 위로부터 온 힘으로 그를 강화시켜 주는 산 믿음으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뿐이다. 다른 모든 방어 수단은 전혀 소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능력은 제한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다." -5T 294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데 그러면 지구촌 70억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 20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 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 10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증언했지요 [롬 7:19-24]

지구촌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인정하거나 인정치 않거나
그 마음 속에 "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들끓고 있는 이런 :죄"인데

이 죄는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지 않고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요?

여기서 재림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라는 사실과
1844년 이후 우리의 의로서 그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우리의 의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서 [personal Saviour],
또한 나의 현재의 구주로서 [present saviour]
내 마음 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다고 하지 않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하십니다

참된 셋째천사의 기별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성경상으로 이해하든 자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해하기 쉽게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로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현재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지구촌 모든 사람 속에 죄가 들끓고 있지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지요 [막 7:20-23; 롬 8:7; 롬 7:19-24]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악한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죄들을 지적하며
우리를 죄로 몰고 있는데
그럼 이런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일 3:8]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 죄들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증오, 야심 및 정욕 등은
모두 무단 침입자인 마귀,
이 지구촌에 내쫓긴 도적 [요 10:10]
옛범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마귀를 내쫓으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니 내가 나의 마음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악한 죄들을 단번에 내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서 그 율법앞에 서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면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한다면 이런 모든 죄들, 마귀가 우리 속에서
하는 모든 죄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 속에 거할 수 있는지요?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라는 사실....

아래의 증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끝나게 하셨으며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지셨고 당신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마음에서 죄의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신자의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수한 특성을 증거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이는 모든 신자들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의 다락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옷입혀주시므로 진리로 기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우리들은 성령의 강화와 그리스도의 의로 기록한 분위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한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1기별395....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 삼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총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소망, 671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이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큰 권세로서 들어오신다고요?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총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우리 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 악한 원한, 증오, 이 모든 악한 것을
우리 속에서 내쫓기 위하여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총만한 능력으로
그분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연합할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어떤 권세가 우리 속에 임하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내재하는 죄는 모두 어두움의 왕자 사단이 하는 일로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면, 우리 속에 임하는 빛이
마귀의 하는 일 어두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온 우주가 우리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 10:19]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수 1:5; 요일 4:4]

"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요일 4:13]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시려고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포도나무로서 가지인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지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나요?

그 기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리스도의 품성이며 혼인 잔치에 임을 예복이며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로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인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
 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인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지금 바로 매 순간 받아야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 2:13]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The Holy Spirit is the vital presence of God." -ST1901.8.7.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에게 임하면
 지구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순절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믿음으로 무한한 능력을 붙들게 되며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GW289.

"나는 한 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으나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연약하여 저서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
 음을 보았다." -초기, 120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다
 우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연합
 자신과 성령과의 연합을 이루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드림으로
 이 세상도 지옥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셋째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했던 그 기별
 이 기별이 오늘날 하늘 지성소 시대에 전해져야 할 기별이며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이 지구촌에 보내신 마지막 기별로서

184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사단이 지구촌을 포로로 잡고 있는
 현 시대처럼 더 절실히 요구된 적은 역사상 일찌기 없었습니다.

지금은 말세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경건의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오순절 날의 놀라운 집회를 특징지은 성령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대사들로 산 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1844년의 운동에 것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속삭이는 음조로서가 아니고 큰 음성으로 전해질 것이다." -5T252

이 지구촌에 보내는 셋째천사의 기별의 위력과 권능을 우리 모두는 명백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죽음과 같은 이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한다." (리뷰 1889. 6. 4).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 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계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단 하나의 유혹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소
망, 676]

로마서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
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리라[롬 8:9-11]

위의 증언과 더불어

저는 이번 상을 당한 그 가정,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한 그 가정 다른 분들에게도
귀가 따갑도록 우리의 소망이 확실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신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써의 인성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신성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신성[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
오늘날 문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우리과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산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

저는 귀가 따갑도록 이 부활의 소망을 그분들에게 전했습니다.[계 1:8, 17, 18]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
는 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함
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
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남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소망, 388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나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위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며

“예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으로 죽으신 것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다. 만약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는 영생을 잃을래야 잃을 수 없게 된다.“ (편지
97, 1898).는 사실을 귀가 따갑도록 되풀이 해 전해 드렸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소망 가운데 그들은 잠들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으며
영원토록 하늘 온 우주 세계가 우리 앞에 공개되어 있고
이 사실을 믿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만일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계신다는 것과, 그들이 있는 바로 그 곳에서 그분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모든 사람을 교육시켰더라면, 교회들은 백 배나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대총회를 굳건하게 할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TM326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혹시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옥같은 말씀]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일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써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흩어 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감화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성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늘이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오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내적 성전을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구주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구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많은 영혼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조류(潮流)를 타고 그 영광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실물

교훈, 420.

인쇄하기

취소